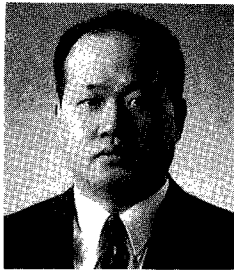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백태클과 편집광(偏執狂) 환자



차 상 협
한일농원 대표

‘행운은 미소지은 뒤에 배신한다.’ 전반 28분, 하석주 선수가 문전 프리킥을 선제골로 연결시킨 뒤 그 순간의 기쁨을 동료들과 나누는 광경을 보면서 프리킥이 멕시코 선수의 머리에 맞고 방향이 바뀌어서 들어갔으

니 일종의 자살골이라고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순간, 무모한 백태클과 퇴장당하는 하선수를 보며 문득 머리에 떠올랐던 서양의 격언이다.

멕시코와의 시합이 있던 다음날, 거의 모든 일간신문에서 오스트리아 주심의 레드카드가 지나친 것 아니냐, FIFA에 잘못 보여서 편파적인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등의 우리나라의 해석이 실려있는 것을 보고 이게 아닌데 하는 감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나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월드컵 경기부터는 선수 보호차원에서 백태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그 선수를 퇴장시켰다는 내용의 외신보도를 상당히 여러번 접했던 것으로 안다.

아마 이런 강력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축구 강대국들이 우승확률이 희박한 참가국가들의 선수들로부터 자국의 선수들을 보호하면서 자신들의 우승을 좀더 보장받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여하튼 하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기전에도 이미 두 세차례 한국선수들이 백태클로 인한 옐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FIFA의 새로운 규정이 결코 엄포가 아니구나, 한국 프로리그에서 하던 것처럼 이번 월드컵에서 상대선수에게 백태클하면 퇴장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우리선수들이 갖고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특히 현 대한축구협회장은 FIFA 부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축구협회 임원진 및 감독이하 스태프진에서 새로운 경기룰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족과 선수들의 철저한 사전교육의

부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월드컵 본선 4회 연속진출의 달성은 우리에게 아시아 최강이라는 자부심을 갖게해 프랑스를 가기도 전에 때 이른 삼페인을 터뜨려 프랑스 월드컵 최초 백태클로 인한 퇴장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된 근본 원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 역시 미국을 위시한 세계 경제강국들이 자국의 이익우선을 목표로 삼아 그때그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하는 세계 경제법칙의 변화를 국민전체가 이해하지 못한채 과거 생활에 대한 상대적 만족감으로 인한 방만한 생활이 야기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국민들은 그렇다치고, 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최신 경제이론으로 학위를 따고 국제회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세계 경제변화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부 엘리트 관료들에게도 우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강국들이 아시아의 4마리 용을 그 권좌에서 밀어내기위해 제시했던 WTO체제나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등의 옐로카드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견제할 준비를 왜 하지 못했는가? 특히 자기 만족에 빠진 국민들을 리드해서 '경제 16강'에 진출할 사전준비가 어찌면 그렇게 소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심한 생각이 든다.

앞서 말한 일련의 옐로카드가 의미하는 바를



무시한 채, 상대방에 대해 가져왔던 백태클이라는 옛 습관에 젖어 지내다가 IMF체제의 레드카드를 받고 자력에 의한 정상적인 국가 경제운영으로부터의 퇴장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음을 생각해볼 때 하선수의 퇴장은 그저 단순한 의미의 일과성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 김대통령도 방문한 바 있지만, 미국에서 현재 제일 잘나가는 기업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텔이라는 회사이다.

주력제품은 컴퓨터의 두뇌역할을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이며, 최근에는 일본회사를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인텔을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인텔 회장 앤드류 그로브의 경영철학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경영철학을 한마디로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정신병자(偏執狂)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컴퓨터업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주변환경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착란증에 걸린 것처럼, 초긴장 상태로 항상 경계하는 자만이 경쟁에 이긴다는 모토(motto)를 갖고 있는 인텔의 매년 매출액과 순이익은 약 30%이상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주식 가격이 두 배이상 상승해 1주가 2주로 증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초우량기업의 회장이 항상 초긴장 상태로 경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상품에 불량품이 있지는 않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상품을 시판하는 것은 아닌가, 공장가동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너무 많은 공장을 세운건 아닌가, 적절한 인재를 채용했는가, 윤리의식에는 문제가 없는가 등에 대해 늘 걱정하는 인텔회장은 어쩌면 <역사연구>의 저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하는 문명의 흥망성쇠와 같은 맥락에서 성공한 사업은 으레 멸망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는 기업의 흥망성쇠론을 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성공한 기업으로 언론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우리기업들의 급작스런 화의 신청이니, 부도니하는 경제뉴스를 접하면서 왜 우리는 좀더 긴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그의 저서 <트러스트>에서 정의하였던 것처럼 미국과 같은 고(高)신뢰사회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인텔 회장도 기업경영에 있어 초긴장상태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 하물며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기업경영을 하면서 순간의 성취에 빠져서



미국과 같은
고(高)신뢰사회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인텔 회장도 기업경영에 있어
초긴장상태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
하물며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기업경영을
하면서 순간의 성취에 빠져서
경계를 늦추고 있다보니
오늘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가져오게 된 것은 아닐까?



경계를 늦추고 있다보니 오늘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가져오게 된 것은 아닐까?

몇십년된 거래처도 믿을 수 없고 계속 거래해오던 은행도 믿을 수 없는 불신사회에서 한 치·앞이 안보이는 양계업을 2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양계경영자로서 나역시 편집광(偏執狂)처럼 항상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계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회사의 전직원들에게 그런 견제의 식을 심어주었는지, 그래서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초긴장 상태로 경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경기장에서 퇴장당할 수도 있는 쓸데없는 백태클을 하는데 신경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초 여름 밤의 월드컵 중계방송이었다. **양계**